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옥자(여, 1932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김상선(여, 1933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- 줄거리: 제보자의 친정어머니는 등치도 좋고 기운도 썬 사람이었다. 하루는 보리밭에 일꾼들을 시키다 남은 보리들을 밤중에 가지러 갔는데, 뒷골동산을 넘어올 적에 도깨비불이 나타나 제보자의 친정어머니를 훌리려 하였다. 그러나 워낙 기운이 센 사람이었는지라 이에 훌리지 않고 오히려 이 도깨비불을 등잔 삼아, 남아 있는 보릿단을 전부 집으로 잘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1]** 아.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디 옛날은 밧디 보리를 많이 갈았어. 보리를 많이 가난 뒷골이엔 헌 밧디 나가 물에거 허면서 밧을 한 오백 평짜리 상 놔두난. 거길 보리 간다. 이제 구루마 빌어가지고 보리를 싣거 오다가 남았다는 거라.

어둑으니까 남헌티 다시 실으래 가지도 못허고 주忸 먹엉 그 사람은 보내된. 우리 어머닌 이제 “에염에 뭣 안 남앗이믄 두어 번 강 지어오민 짐으로 지엉. 지어오민 뛰주.” 헤그네 이젠. 간 세어보나네 뭐 두 번이랑 말양 뭐 밤 세낟 지어야 뛰것더라. 무신 나만. 게난 그걸 지엉 오는디. 옛날은 도체비를 많이 낫어, 도체비, 도체비를.

경 헌디 그 뒷골 동산이 좀 높으잖아. 좀 높으니까 거기서 베로 지엉 오는디. 이노무 도체비덜이 우리 어무니 앞이 그냥 막 길을 가르쳐서 막 집까지 왓다가, 갖다가 우리 어머니를 훌려갈라고 어디.

게난 우리 어머닌 춤이 사람덜토 다 알주만은. 여자라도 막 등치도 크고 성주가 썬 어른이니까. 우리 어머닐 어디 나쁜 더레 심어다가 들이치진 못헌 쟁이라. 그 보리 다 지어올 때꺼지 이노무 도체비가 우리 어머니허곡 불 켜줘서 우리 어무니가 보리를, 그 보리를 밤새 놓 헨 지어왓어. 그런 일도 잊어낫어요, 옛날에는.

**[조사자]** 아, 뒷골동산이엔 헌 데는 어디마씨?

**[제보자1]** 으디 저 충혼묘지 가는 디. 충혼묘지 가당 보민 손 왼쪽으로 거기가 뒷골동산이 라고 헌 딘디. 이제는 길 빠면서 다 뭐 헤불었어.

**[조사자]** 길 빠니까 예전에 길 안 나고 어둑어둑 허고 길 눈 안 밝을 때 그런 때만 나오 는 모냥이로구나예?

**[제보자2]** 응. 옛날에는 어둑행 들도 엇곡 비 왕직헨 어둑한 때.

**[제보자1]** 가로등도 엇곡 경 헌 때나. 경 헌 때는 그 도체비가 많이 나.

**[제보자2]** 옛날은이 초를 들령 영 촛양 뎅겼주게. 제사 먹으레 강 오멍도 거 초롱불 들령 뎅겨낫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밧, 보리, 밤, 뒷골동산, 불, 기십, 여자, 도깨비, 초롱불